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410장** **다같이**

1.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후렴〉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일세
2.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3.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써 이 평화 누리도다
4.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10:4-6** **인도자**

-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 5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 6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설 교 **“방황하는 생각”**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 설교자의 대표기도 또는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1)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개인이 회복하도록
- 2)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방황하는 생각”

(고린도후서 10:4-6)

파스칼은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그러니 올바르게 사유하도록 힘쓰자”라고 했다.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번 설교는 고린도후서 10:5를 바탕으로 한 요한 웨슬리의 “방황하는 생각”(wandering thoughts)이란 설교에 기초를 두었다. ▶ ① 방황하는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생각으로서 무신론자의 생각이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 항상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생각한다. ② 방황하는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죄악 된 기질에서 나온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 불신앙에서 나온다. 병든 육신이 영혼을 억누르고 그 영혼이 생각을 혼란하게 한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③ 방황하는 생각 중 어떤 것이 죄 된 것인가? 불평, 분노, 미움, 걱정, 두려움, 교만, 욕욕, 허영심을 일으키는 생각들은 다 죄악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생각은 죄다.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끄는 생각은 죄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생각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 어떻게 하면 방황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로 끌고 가야 한다.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로 가져가야 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5절). 사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생각에 집착하고 얽히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인간의 타락 단계는 하나님을 경시하면서 생각이 허망해질 때 벌어진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롬 1:21). 모든 종류의 방황하는 생각은 죄이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이런 방황하는 생각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도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닳을 내리지 않은 배처럼 바람과 풍랑에 요동을 친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닳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히 6:19). 세상의 말을 너무 경청해도 방황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말을 마음에 두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전 7:21).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나병 치유를 받으러 온 나아만은 엘리사의 처방에 이의를 제기하고 “내 생각에는...”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 분명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생각에 골몰했던 사람이다.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며 살았고 물질이 영혼의 필요로 채워줄 것으로 착각했다. 요사이 음악, 그림, 음식, 여행이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된다고 하는데, 다 일시적이다. 위로의 대상이 없는 위로는 상상의 위로다.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 확증 편향도 우리 생각을 방황하게 만든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수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자기 생각에 맞추는 것이다. 심지어 성경과 설교조차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거부한다. 이런 사람은 변화가 없다. 성경 말씀에 따라 자기 생각을 고쳐야 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자기 생각을 면밀히 분별하고, 잘못된 생각은 거절하라.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생각이 정리된다. 기도와 말씀과 말씀 묵상에 시간을 많이 드려야 생각이 변화된다.